

## 시편 113편 묵상 -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시편 113편; 에베소서 1:17-2:10

개역	사역
1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	1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2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2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3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3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4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도다	4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그분의 영광이 하늘 위에 <u>높이</u> 들리도다.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오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5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그분은 드높은 곳에 <u>앉으신</u> 분,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6 하늘과 땅을 굽어살피시는 분이다!
7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7 그분은 가난한 이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 더미에서 <u>높이 드시어</u>
8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8 존귀한 이들, 곧 백성의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u>앉게 하시는</u> 분이다!
9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데도 할렐 루야	9 그분은 석녀(石女)도 집안에 <u>앉게 하시니</u> 자녀들을 두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 다. 할렐루야!

오늘 낭독한 시편 113편은 따로 떨어진 시편이 아니라 118편까지 함께 묶여 있습니다. 113-118편을 ‘출애굽의 할렐루야 시편’ 이라고 부르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마치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에 그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식사 전에 113-114편을 부르고 식사 후에는 115-118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배경으로 부르는 이 시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충만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유월절 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부르시면서 이 시편에서 노래한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도면밀히 준비하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4-16장에 걸친 내용을 가르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이에 출애굽의 할렐루야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30을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찬미하였다는 말은 ‘시편을 불렀다’ 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출애굽의 할렐루야 시편을 부르셨고, 그 시편을 부르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113편은 높이신 하나님께서 낮게 되셔서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노래한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낮게 되시면서 이 시편을 부르셨고, 이 시편을 부르시면서 유월절의 구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유월절에 부른 시편 113편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한 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

시면서 이루신 시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입에 두신 시편입니다. 아홉 구절로 된 짧은 시편이지만 출애굽의 구원, 십자가와 승천의 복음,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관하여서 알려 주시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다음의 세 가지 소제목으로 113편을 읽겠습니다.

첫째,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둘째,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하겠는가?

셋째, 누가 그리스도인과 같다 하겠는가?

#### 1.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113편에서 가르치는 풍성한 내용을 잘 알기 위하여서는 이 시편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113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 절씩 나누어서 읽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와 이름이 세 번 나오고, 찬양하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공간적으로는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4-6절에서는 높은 곳에 계시나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데, 그런 분이 스스로 낮추시면서 천지를 살피시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합니다. 7-9절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아이를 낳지 못 하던 여인을 높이십니다. 여기에서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대비되면서 낮은 자를 높이는 일이 있습니다. 4-6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고, 7-9절에서는 지극히 낮은 자들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13편을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시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읽는 것인데, 이때에 5절은 시의 중간에 있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5절까지는 ‘여호와’ 라는 말이 여섯 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5절에서 ‘하나님’ 과 ‘여호와’ 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6-9절에서는 ‘여호와’ 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히필’이라는 사역형 동사가 있는데, 이 형태를 많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여섯 개 동사 가운데서 세 개는 ‘앉게 한다’ 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동사인 ‘굽어 살핀다’ 와 ‘일으켜 세운다’ , ‘높이 든다’ 하는 말들은 ‘높이 든다’ 하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이 든다’ 와 ‘앉게 한다’ 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높이 든다’ 와 ‘앉게 한다’ 는 두 동사는 4-5절을 보면 하나님께 적용된 말인데, 그것을 6-9절에서는 사람에게도 적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으로 높이 들어서 거기에 앉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기에 무엇인가 매우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 (1-3절)

<sup>1</sup>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와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sup>2</sup>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sup>3</sup>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1-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을 받으소서’ 혹은 ‘할렐루야’ 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찬송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간적으로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해

가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것처럼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1-3절에는 ‘여호와와 이름’ 이 세 번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 전에 어린양을 잡고 상에 둘러앉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라’ 는 말을 세 번 반복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세 번 찬송하는 이것을 ‘구약의 성삼위송’ 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라’ 고 해도 될 텐데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라’ 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와 이름’ 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이름’ 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 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함께한다’ 혹은 ‘나는 되리라고 한 그가 된다’ 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출 3:12-15).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서문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20:2).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이름’ 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 곧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일을 심부름한 천사도 찬송하고, 애굽 땅 바로의 학정 밑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유월절 식탁에는 부모만 아니라 자녀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에게 유월절의 뜻을 알려 주면서 시편 113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월절 식탁은 어린양이 있는 식탁이고, 보통 때와 달리 더 풍성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그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오실 그분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 구원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날을 바라보면서 찬송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손만대가 찬송할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모든 세계가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시편을 찬송하였습니다.

## 2) 높으시나 스스로를 낮추시는 주님을 찬송하라 (4-6절)

- <sup>4</sup>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그분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도다.
- <sup>5</sup>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그분은 드높은 곳에 앉으신 분,
- <sup>6</sup> 하늘과 땅을  
굽어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계셔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 위에 계신다는 말은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보다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를 주장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압제로부터 건져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 위에 높이 계셔서 만국을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사 40:15)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십니다(사 40:17).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분의 백성을 얼마든지 거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사 40:1-2).

또한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데에 있습니다. “웃시야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6:1).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서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 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것처럼 높이신 분이기에 때문에 113:5에서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하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그다음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6절은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굽어살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도 굽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굽어 보실 정도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땅의 낮은 곳까지도 내려다보십니다. 이 땅은 어둠과 사망밖에 없지만, 그렇게 높이신 분이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고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고 내려오시는 목적은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8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낮은 데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의 중앙에 있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는 데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흥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출 15:10-11)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일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 3)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을 찬송하라 (7-9절)

<sup>7</sup> 그분은 가난한 이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 더미에서 높이 드시어  
<sup>8</sup> 존귀한 이들,  
곧 백성의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시다!  
<sup>9</sup> 그분은 석녀(石女)도 집안에 앉게 하시니  
자녀들을 두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7절부터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높이신 여호와께서 가난한 이를 티끌이나 거름 더미에서 높이 들어 올리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진토나 거름 무더기는 추방된 사람이 사는 곳이며 거지가 사는 곳입니다. 거름 무더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데(느 2:13. ‘분문, 糞門’), 궁핍한 사람은 거름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잠잘 곳을 찾습니다. 냄새가 나지만 후각은 쉽게 적응하니까,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곳에 살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단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을 멸시하고 가까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는 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사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높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공활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들어 올리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높은 곳에 앉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고 궁핍한 이를 거름 더미에서 높이 드신다고 하였는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진토 위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거름 더미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도토리 키재기하듯 별 차이가 없는데 하늘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높아야 한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이루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자기의 기대와 달리 자기를 높여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미움을

품고 교묘하게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나눕니다. 또 칭찬을 받으려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교육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은 조금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조금 더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입니다. 거름 더미에 살면서 거기에서도 상석과 말석을 나누어 놓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낮은 사람들을 높은 위치에 두시고, 존귀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세상의 신들 가운데 이렇게 높은 분도 없고,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분도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보다도 높으신 분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거름 무더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은 분도 없고, 하나님처럼 낮아지신 분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여호와의 높으심과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낮은 데에 찾아오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위를 높이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하면서 찬송합니다.

4절과 7절에서 ‘높이 든다’는 말은 각각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용되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셨는데, 7절에서는 거름 더미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높이 드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적용한 말을 우리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적용한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또 다른 경우가 이 시에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데에 있는 자들을 존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8절). 또 9절에서는 석녀(石女)도 집안에 ‘앉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것은 다스리시기 위함인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앉아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성문에 앉아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은 아이를 낳고 집에 앉아서 집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부르는 113편은 바로의 학정 아래에 있는 모습을 회억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들은 거름 더미에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냄새나는 더러운 사람들과 여겨서 함께 음식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티끌과 같고 거름 더미에 앉은 자와 같았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석녀’라는 표현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젊은 여인은 다른 민족과 혼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석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티끌처럼 사라지고 석녀처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은 ‘여호와,’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면서 석녀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높이 드셔서 자녀들을 둔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돌봄을 받고 한 집을 이루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 바로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데까지 친히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주님의 보배로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뵈고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출 19:4-6; 신 26:19).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하늘의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길 정도까지 높이신 것입니다.

#### 4)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부르는 시편

시편 113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르는 시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할 때에도 잘 맞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5에서는 그 비참함을 113편의 말로 표시합니다.

진수(珍羞)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걸린 자가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을 입고 고귀하게 살던 여인이 거름 더미를 껴안고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그 속에서 추위를 피하여 목숨을 연명하는 모습을 그러한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티끌과 거름 더미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여서 그렇게 비천한 데에 떨어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는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티끌 속에 살던 그들을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 세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은 자와 같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좌에 앉히셨습니다(사 52:1-2).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이제는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사 54:1),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사 54:4). ‘너의 구원자는 네 남편’ 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장막 터를 넓혀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을 불렀고, 또한 유월절 어린양이 이루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 2.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하겠는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회고하면서 부르는 시편 113편은 동시에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낮게 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일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낮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 1) 찬송하면서 낮아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서는 부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고후 8:9).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뜻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데에서 충만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식사 때에 시편 113-118편을 부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도 이 시편을 부르면서 가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 26:30). 주님께서 이 시편을 부르시면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구원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시려고 그처럼 부요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낮고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히는 데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와 무덤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할렐루야” 로 불리는 시편들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주님은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sup>5</sup>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1, 5)

113편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비통해 하거나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으신 분이 진토 위의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하겠는가?’ 하는 이 말은 제2위이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과 같다 하겠는가?’

## 2) 높이 되시면서 믿는 자도 높여 주신 그리스도

시편 113편 후반부에 나오는 동사가 여섯 개인데, 그것들은 ‘높이 들어 올린다’ 와 ‘앉는다’ 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동사를 에베소서 1:19-2:7에서는 예수님과 신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적용한 1:20과 신자에게 적용한 2:6만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엡 1:20)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엡 2:6)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17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고, 또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부르심의 소망과 기业的의 풍성한 영광과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작용하는 능력을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의 몸인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옥에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내어 만대(萬代)의 교회가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신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었다는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잘 돌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처음부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3의 ‘다툼’ 이라는 말은 ‘경쟁심’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심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가르칩니다. 2:7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고 가르치는데, ‘비운다’ 는 이 말은 2:3에서는 ‘허영,’ 곧 ‘공허한 영광’ 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는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실을 가르칩니다. 속이 빈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그 뜻을 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시기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참여하면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심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멀리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람과 부딪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해답을 주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을 깨달은 신자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하겠는가?’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께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드립니다.

## 3. 누가 그리스도인과 같다 하겠는가?

### 1) 교인의 찬송과 고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와 이름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할 수 있고 능력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사 57:15)는 말씀처럼, 자기는 진토 위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고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가 석녀(石女)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를 위하여서는 굉장한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히 말하자면, 자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연장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요 1:13).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초기부터 이 사실을 인상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가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족장 세 사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언약의 자녀는 사람의 뜻대로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낳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석녀라고 고백하고, 자녀를 통하여서 자기를 실현하려 하거나 자녀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와 이름만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음을 깨닫고 낮추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복에 참여합니다. 아들이 많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브닌나처럼 되고,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브닌나처럼 자녀가 많고 자녀가 잘되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딸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기울이면 브닌나처럼 됩니다. 그러한 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석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셔서 조금 사람답게 되었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높인다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큰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교회의 사명

시편 113편에서는 석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석녀가 아이를 낳고 집을 이루고 산다는 사실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석녀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는 원수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습니다. 시편 87편에서는 이집트와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이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시온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노래합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후 4:12)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해산의 고통은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해산



의 수고를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천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였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의미를 깨닫고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히 11:38).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인과 같다 하겠는가?’ 하면서 감탄하고, 주님의 교회에 가담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보다도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낮게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높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세상은 얼마나 높이 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113편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낮은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온 세상을 채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편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매일 부르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도 이 시편을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복음을 이 시편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은교회, 2005년 12월 24일; 신학교 경건회, 2011년 9월 15일)